

[P10-7] ITU-R Working party 7D 최근 회의결과 및 향후 대응책 마련

Hyunsoo Chung, Do-Heung Je, Hyo-Ryoung Kim,
Se-Jin Oh, Duk-Gyoo Roh
Korea Astronomy Observatory

전파천문업무의 주파수 공유와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전파통신회의 (WRC)에서 결정되는 국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문서의 작성과 사전의견조율은 ITU-R 산하의 Study Group과 working party 및 CPM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기존에 제정된 ITU-R의 권고안 및 WRC 의제에 대해, 각 업무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은 WRC 회의의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대표단을 ITU-R Study Group과 해당 Working party에 파견하여, 권고안 값의 개정과 WRC 의제 관련 회의의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의견개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접대역에서 운용되는 송출기로부터 전파천문업무를 보호한다든지, 스푸리어스 발사로부터 전파천문의 주파수 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ITU-R의 권고안을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이들을 수정하는 대응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2005년 3월 7일부터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되었던 ITU-R WP7D 회의의 결과를 소개하고, 인접대역의 불요발사로부터 전파천문대역을 보호하고 스푸리어스 발사로부터 전파천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출하였던 권고안의 수정결과 및 향후 국내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P10-8] 최적의 플랫폼 영상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충욱, 김승리, 추경자, 이정애, 강용범, 구재립
한국천문연구원

레몬산천문대와 소백산천문대에서는 B,V,R,I 파장 영역에서 최적의 플랫폼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각각의 천문대에서 획득한 플랫폼 영상을 이용하여 단위시간 및 단위 면적당 입사한 플럭스 양을 계산하였고, 관측 시각으로부터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여, 태양의 위치에 따른 각 파장 영역에서의 플럭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각 필터별로 플랫폼 영상을 얻기 위한 최적의 관측 시각과 노출 시간을 계산하여 관측자에게 알려 준다